

스마트폰에 Instant Plays 관련한 알림이 떠서 확인해보니 어떤 이벤트가 진행중에 있었다.

짜파게티 리뷰 글에서 갑자기 뭘 소리냐고? 보면 안다.



이벤트 내용은 간단하다.

지뢰찾기, Mine Sweeper라는 게임의 Normal mode를 120초 내로 클리어하면 경품을 준다는 것.

(해당 모드에는 12\*18 크기의 맵에 32개의 지뢰가 있다.)

다운로드도 필요 없고 쉬워보여서 도전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성공하고 상품도 받긴 했는데 한 30분 넘게 걸린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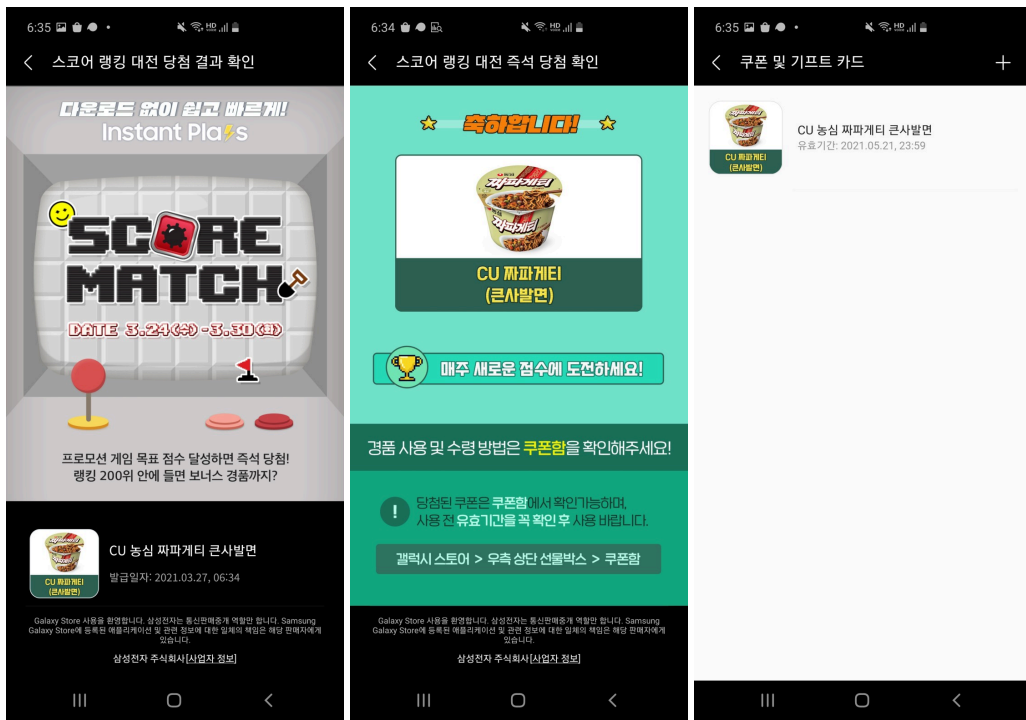
그마저도 중간에 한 번 실패했는데 광고 보고 다시 한 결과다.

(게임 중 한 번만 가능. 광고 보고 오면 지뢰 찾은 부분에 깃발이 생긴 채로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100초 나왔는데 12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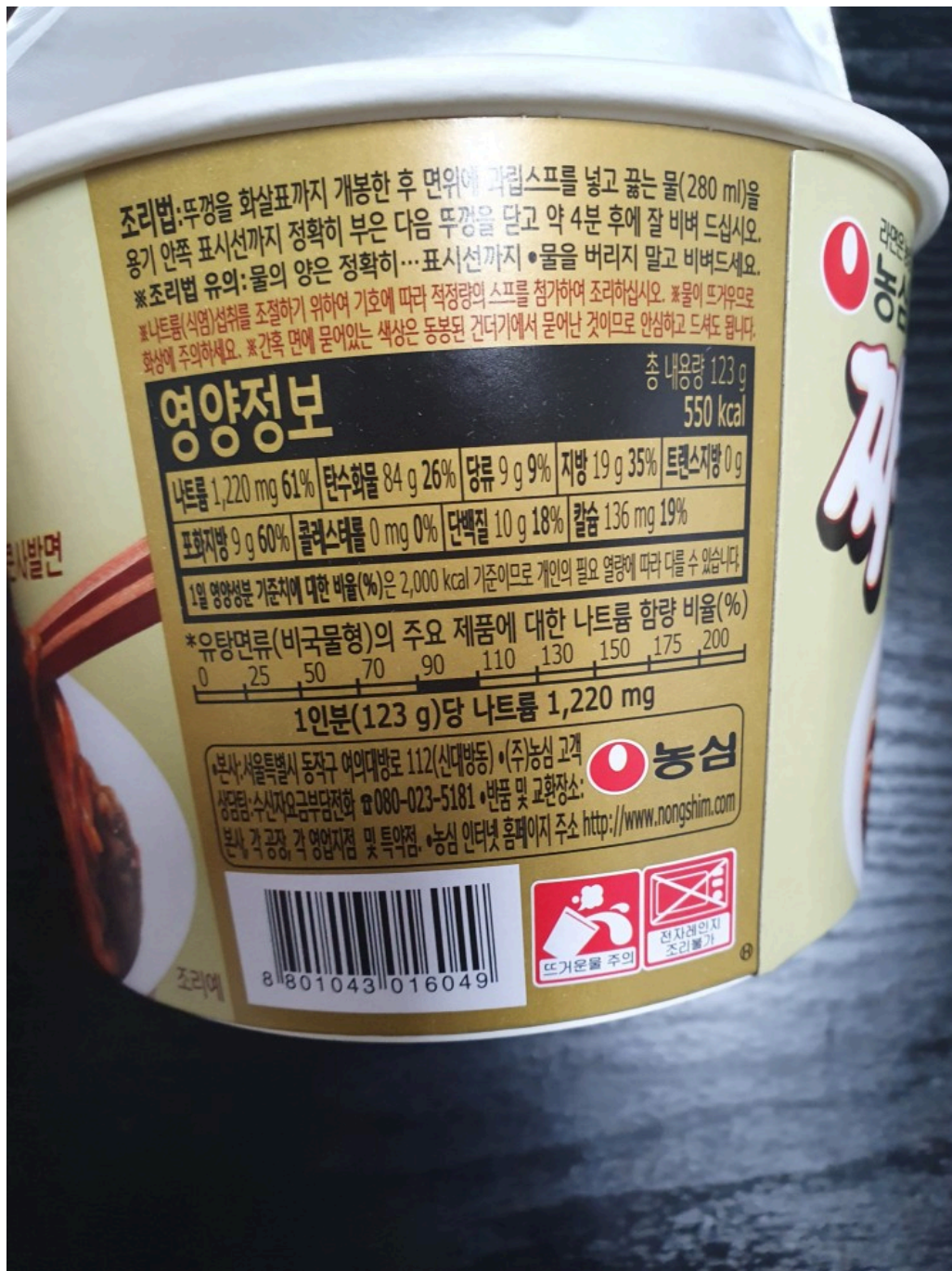
랭커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 분명하다.

(그냥 내가 바보라서 그럴 수도 있다.)



즉석 복권처럼 긁어보니 당첨이 됐다.

시급 1,150원짜리 게임...이라고 잠깐 생각했다가 놀면서 저녁 거리를 구한 것에 만족했다.



짜파게티를 봉지라면만 먹다가 컵라면으로 먹을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용기에 적혀있는 대로 물을 버리지 말고 비벼야 한다는 것.

예전에는 몰라서 물 다 버리고 먹었는데 이번엔 암전히 잘 났었다.

다만 이번에는 용기에 물 붓고 허겁지겁 유성스프를 찾았다. (...)

짜파게티 큰사발면에는 과립스프 하나만 있고 유성스프가 없다.



물을 따로 빼지 않아도 전분이 들어가서인지 꾸덕꾸덕하고 맛있다.  
다만 계속 먹다보니 내 입맛에는 약간 물린다.





김치가 없어서 아쉬운 대로 집에 있는 마요네즈를 넣어 먹었다.  
예전엔 라면에 마요네즈 넣어 먹는 걸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넣어 먹어보니 왜 그렇게 먹는지 알겠다.  
덕분에 맛있게 먹었다. 냘.

[이벤트 바로가기](#)

이벤트 기간은 3/30 까지이다.